

## 12 르포-복학생 예비군의 하루

## 국방부 시간은 과몰입할수록 빨리 흐른다

서세종 기자 [sejong0362@knu.ac.kr](mailto:sejong0362@knu.ac.kr)

현역으로 제대한 학생들과 보충역을 필한 학생들은 복무 이후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돼 매년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다. 1년차 예비군인 우리신문 서세종(국제학 2017) 기자는 지난 11월 14일 국제캠퍼스에서 시행된 학생예비군 훈련에 참여해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예비군 훈련일 전날 장통 속에 방치하던 군복과 전투화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훈련복에서 군대 냄새가 묻어났다. 전투화에 묻어 굳어버린 흙을 떼어내며 이제는 제대하고 사회에서 생활 중인 옛 동기들과 함께 한 몇 년 전 추억을 떠올렸다.

우리학교에는 학생들을 예비군 훈련장까지 바래다주는 셔틀버스가 있다.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캠퍼스 정문으로 향했다. 아침 8시 경 길가에 흘어진 은행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정문에는 군복 입은 학생들로 가득했다. 현역 용사들은 제대할 때 군복을 화려하게 꾸민다. 지난 군 생활을 추억하는 그들만의 방법이다. 훈련장까지 바래다주는 버스를 기다리며 학생들의 군복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서 학생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했다. 예비군 아저씨들은 그간 듣지 못한 근황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가 없는 복학생의 입에서는 입김만이 나왔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다들 꿈을 다짐한다. 국방부의 시계 밑에서 현역 용사들은 사회에 나가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 새로운 전공을 가지거나, 창업을 결심하는 등 모두 꿈을 찾아 흘러진다. 그랬던 친구들을 예비군 훈련 날 재회한다. 복학생들의 정모다.

나 또한 각자 복수전공으로 흘러져버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그는 응용수학과로, 나는 철학과로 떠났다. 응용수학과와 나는 그간 못나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는 군복 입은 남학생들이 가득차 있었다. 운학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해서는 버스 안에서 코로나 자가검사를 했다. 코를 찌르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는 순간 사내들로 가득한 군대 냄새가 났다. 훈련장에 입소해 화장실에 갔다. 건물 안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었다. 다시 한번 군대 냄새가 났다.

조교들이 우리를 교육장으로 안내했다. “운학 예비군 훈련장에 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다들 꿈을 다짐한다.

(사진=연합뉴스)

“

나도 복무 시절엔 무언가 모를 책임감과 애국심을 느꼈던 것 같다. ‘조국’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나로 인해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올렸다. 나도 그땐 ‘과몰입’했었다.

”

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관이 나타나 훈련 일정을 설명해줬다. 훈련은 9시부터 6시까지다. 야지전투 훈련, 목전지전투 훈련, 시가전 훈련, 개인화기 훈련, 영상화기 훈련 등 총 5가지 훈련을 모두 마치면 집에 갈 수 있다. 학생들은 각자 분대를 지정받았다. 분대별로 훈련장에 찾아가 훈련을 받았다. “모든 훈련을 이수할 경우 일찍 퇴소할 수 있습니다” 교관의 말에 다들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분대는 먼저 야지전투 훈련장으로 향했다. 조교들이 훈련장 앞에 서 있었다. 조교들은 모두 현역 용사들이다. 조교의 왼쪽 가슴에 박힌 작대기 2개를 보며 그들이 딱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우리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훈련을 안내해 줬다. 그들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본격적인 야지전투 훈련에 앞서 영상으로 훈련 내용을 교육받았다. 옆 분대를 상대로 벌어지는 전투에서 우리 분대는 적군을 사살하고 전장 가운데 있는 깃발을 탈취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우리 분대원들

은 각자 전투 조끼와 화기를 지급받고 모의 전장으로 향했다. 모의 전장으로 향하는 도중 응용수학과가 분대원들에게 말했다. “군대는 과몰입해야 시간이 잘 갑니다”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를 다짐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다. 우리 분대는 오와 열을 맞춰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문을 통해 짬밥 냄새가 진하게 흘러나왔다. 몸에 걸친 군복과 머리에 얹은 전투모 때문에 몸이 피로하고 배가 고팠다. 다들 아침 일찍부터 나온 텃에 아침밥을 거른 듯 했다. 허겁지겁 점심을 해치웠다. 나를 밥을 빨리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군대에 오면 다들 나보다 빠르게 먹는다. 점심을 먹은 후 나는 응용수학과 함께 친구들과 모여 또 수다를 떨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기 훈련장에 도착했다. 훈련 교육을 받고 사로에 선다. 따귀에 닿는 개머리판의 족감은 차갑고 딱딱했다. 탄피 배출구에서 새어 나오는 화약 냄새에 코가 매웠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느껴

지는 반동과 소음에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표적에 박힌 총알 3발의 흔적을 보며 응용수학과에게 물었다. “우리 몇 발 쐈지?” 응용수학과는 내 표적을 보며 웃는다. “다섯 발”

응용수학과의 말대로 나머지 훈련 동안 과몰입했더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훈련을 모두 마치고 처음 모였던 교육장으로 돌아왔다. 교육장에서 조교들과 마주쳤다.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무미건조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답한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복무 시절엔 무언가 모를 책임감과 애국심을 느꼈던 것 같다. ‘조국’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나로 인해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올렸다. 나도 그땐 ‘과몰입’했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사회에서 조교들을 만났다면 그들도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그들도 시간이 빨리 흐르길 바라며 주어진 역할에 과몰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